

비스 대표이사가 위촉되었다.

『면허자 모임』활동위원으로는 산업분과에 분과장:허남(현대원자력), 총무:김휘철(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 교육분과에 분과장:정국현(전북대학교), 총무:최경순(서울대학교), 의료분과에 분과장:최삼규(삼광의료재단), 자문위원:최준영(국군서울지구병원), 비파괴검사분과에 분과장:주광태(고려공업검사), 총무:백민호(서울검사), 연구분과에 분과장:서경원(원자력연구소 연수원), 자문위원: 권석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이 위촉되었다.

이날 14시부터는 위촉장을 받은 면허자 모임의 분과장, 자문위원 및 총무가 모여 향후 면허자모임 추진계획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협회는 앞으로 면허자 모임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제57차 이사회

제57차 이사회가 2002년 5월 21일(화) 10:00부터 도시개발공사 1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56차 이사회 결과보고』의 3개의 보고안건과 『2001년도 추경예산(안)』의 4개의 의결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날 주요 보고 안건으로서 제55차 이사회(02.1.30)시 심의된 바 있는 『통상회비 조정에 따른 소위원회 검토결과 보고』가 있었다.

이로서 밀봉방사성동위원소 수입시 수입(판매)가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60%를 할인적용해온 통상회비가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 원상회복되며 2003년 1월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다시 10% 원상회복된다.

RI이용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의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중국 RI협회와의 협력추진결과 보고』가 있었다. 기존에 중국과 체결된 협력각서에 따라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상호노력하며, 한국측의 국제동위원소회의 유치에 대하여 중국측의 적극적 지원과 한국, 일본, 중국 3국이 합의하여 정례화 시킬 프로그램에 따라 교환방문을 함으로써 동위원소에 관한 이용 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한국과 중국의 협회가 서로 창구가 되어 자국 회원사를 지원 협력키로 하였다.

『협회 조직 및 정원조정(안)』은 현 4개팀을 직능에 따라 일부 명칭변경과 함께 소관직무를 5개부서로 재편성하여, 홍보전문부서인 홍보계몽팀을 신설하고, 정원은 2004년까지 11명 증원계획이 보고되었다.

의결 안건으로서 『2002년도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시 2002년도 증점추진사업으로서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회원사 권익증진과 교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에 중점을 두고 40,700천원의 예산 증액과 사업계획이 조정되었다.

『직제규정 개정(안)』은 국산RI 보급촉진과 이용확대 조정을 위하여 협회내 관계 위원회를 설치하고, 협회 부설기구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인사 회계등을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여비규정 개정(안)』은 국내 출장여비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여비의 산정기준을 신설하였다.

『임원선출에 관한 건』은 김용익 감사의 일신상 이유로 인한 사임으로 전재풍(한빛파워 대표이사)이 보선되었다.